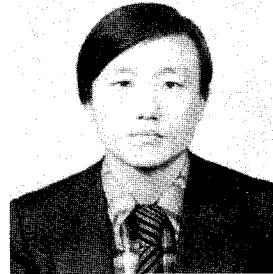


새해 사료업계 이렇게 변한다

곽 성 재

한국사료협회 기획과장



1. 머릿말

우리 나라 배합사료산업의 수요시장율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1983년 기간중의 국민소득증가율보다 계속 앞서나가고 있다. (소득탄력치가 1.45로 나타남) 또한 향후 국민소득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배합사료산업은 앞으로 당분간은 양적인 면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수 있는 산업이며, 1983년의 연간 매출액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을 보아도 국민경제에서 배합사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구 분	1978 (A)	1983 (B)	증가치수 (B/A)
배합사료 생산량	천톤 2,693	천톤 5,900	219
GNP	\$ 1,242	\$ 1,877	151

그러나 1983년도의 사료업계는 배합사료 수요가 600만M/T 수준에 육박하는 급신장을 기록하였으나, 연중 지속되어온 축산물 산지시세의 하락으로 배합사료업계는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공장가동률은 1982년에 비해 크

게 상승하였고 경영수지면에서는 양축가의 외상대금 지불능력 미약으로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료공장을 “장이 약한 巨人”이라고 평한바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생산자(사료공장)나 사용자(양축가) 모두가 어려운 국난 타개를 위하여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무절제한 사료판매량증가를 스스로 자제해 나감으로써 필요이상의 배합사료 수요증가를 감퇴시켜 나가야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 없이도 양축업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깨끗이 씻어 없애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배합사료는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귀중한 외화로 수입된 자원을 값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위속에 피와 땀을 흘려가며 외화를 벌이고 있는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2. 사료곡물 수입제도

사료곡물의 구매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농협중앙회로부터 축산진흥회 및 축협중앙회로 구매창구가 이관되기까지의 전과정을 통하여 국제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구매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사료곡물 구매물량의 증가와 급변하

표 2) 사료용곡류(옥수수) 구매기관의 변천상황

기간	도입기관	도입량	재 원	특 색
1967~1974	실수요자단체 도입 (사협, 농협으로 이원화)	50만M/T ~내외	PL480(농협) KFX(사협)	○외화부족으로 도입량제약 ○실제 도입업무는 원풍등 민간상 사와 농개공이 대행
1975~1978	농협중앙회로 일원화	50만M/T 100만M/T	PL 480 KFX	○축산발전으로 원료도입량 급증 ○소요자금 증가로 농협경제사업자 금 활용 ○국제도입가격 급증으로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 운영
1978~ 1980. 1	축산진흥회로 도입업무 관	100만 M/T~200 만M/T	PL 480 KFX C. C. C	○사료원료도입 용이해짐 ○축산기금내 사료조절 자금활용
1980~1982	축협중앙회	200만 M/T이상	C. C. C K. F. X	"
1983~ 1983. 12	축협중앙회, 사료협회	300만 M/T이상	C. C. C K. F. X	"
1984. 1	배합사료 제조업자 (실수요자)	"	C. C. C K. F. X	"

는 국제곡물 시장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1984년 1월 1일부터 배합사료 제조업체(실수요자) 책임하에 수입 사용토록 지침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자금능력과 구매부서의 수용태세 미약으로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사료곡물과 대두박 등의 다량구매 품목에 대하여는 당분간 소속단체(축협 및 사료협)별로 일괄구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부원료나 소량 단위의 기타곡물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별 직도입이 실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1984년 중에는 정부의 원료사용 다양화 지침에 따라 사료곡물의 사용비율이 옥수수 60%, 기타곡물 40%로 사료공장의 원료사용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료의 선택을 색깔에 치중하지 말고 사료첨가물, 특히 비타민의 첨가량이 충분한가를 세심히 관찰함으로써 원료사용변화에 따른 가축의 스트레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3. 수입원료 관세제도

1983년 중의 배합사료 원료 수입관세율을 관세법 제2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 원료중 옥수수(50%), 대두박(10%), 수수(5%), 어분(10%) 등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84년부터는 관세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전원료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다소 하향조정하여 부가시킨 방침이다(표 3 참조).



표 3. 도입원료 관세율표

단위 : %

구분	83년	84년
옥수수	5	7
수수	5	7
소맥	5	5
대맥	5	5
호밀	20	7
귀리	20	7
G.S.P	20	7
소맥피	20	7
맥쇄	20	7
타피오카	10	20
대두	12	10
대두박	10	15
채종박	10	15
어분	10	15
육풀분	10	15
우모분	20	10
우지	12	12
당밀	20	15
탈지분유	25	20
기타 사료원료	20	20

그러나 사료곡물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7%로 균일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두박, 채종박, 어분 등은 관세율이 15%로 상당히 높게 책정됨으로써 배합사료 제조원가의 일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료용 원료에 대한 국가의 관세 지원 정책이 일본(무세)과 대만(5% 균일)에 비해 크게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현행 부가세법 상에는 가공하지 아니한 1차 국내 농산물에 한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제조업자가 이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원료가격 $\times \frac{10}{110}$)을 공제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료용으로 도입되는 곡물중 옥수수, 수수, 소맥, 대두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FOB $\times \frac{10}{110}$, 약 \$10에 해당함)을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배합사료의 연간수요가 약 600여만 M/T에 이르게 됨에 따라 원료를 가격이나 물

량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곡물(옥수수, 수수등)만을 수입 사용할 수가 없으며, 사료곡물의 수입다양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는 현재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전 사료곡물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료곡물 국제시세의 등락이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곡종간에 일정률의 가격차이를 유지하면서 형성되므로(대략 옥수수와의 가격차이가 10~15일) 사료곡물의 의제매입 세액공제 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가격이 \$15 이상 저렴하다고 해도 도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84년에도 동 공제제도는 1983년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것이 안스러울 뿐이다.

5. 수입옥수수 안정기준가격제도

수입옥수수 안정기준가격제도의 근본취지는 수입사료곡물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옥수수 가격을 국내에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있다.

하지만 곡물수출국의 기후나 수출가격 지지를 위한 곡물수출정책 변화에 따른 옥수수의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국내사료 수요가 크게 신장됨에 따라 사료곡물의 구매시 옥수수 단일곡종으로 구매·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예를들어 1983년 중에 우리가 원료수입 다양화를 추진하지 않고 옥수수 단일구매체제로 지속해 나갔다면 미국산 옥수수의 시세는 C&F 톤당 \$170선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미국현지의 곡물전문가의 평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사료곡물의 수입다양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옥수수의 국제시세가 국내의 옥수수 안정기준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기타곡물의 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이지 않는 많은 외화의 손실과 배합사료 생산원가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옥수수 안정기준가격제도의 폐지는 사료원

료수입다양화 추진에 제약이 되어온 가장 커다란 장애요소가 해소된 조치이며, 84년중에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힘입어 많은 외화의 절약과 원료다양화, 그리고 생산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6. 맷는말

1984년의 배합사료산업의 전망은

● 수요면에서

1983년도와 동일한 약 5,900천 M/T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 경기면에서

1983년도부터 지속되어온 축산물 파이프급에 의한 산지축산물 시세의 하락과 국내산 보리와 옥수수 사용, 일부 수입원료의 판세율 인상으로 인한 배합사료제조원가의 상승요인을 부동켜 안은 채 정부의 강력한 저물가정책에

부응하여야 하는 사료공장의 자금난의 가중으로 사료 및 축산업은 밟지 못한 새해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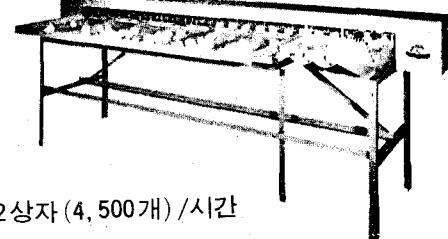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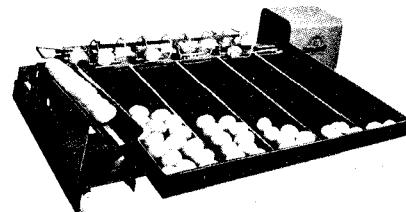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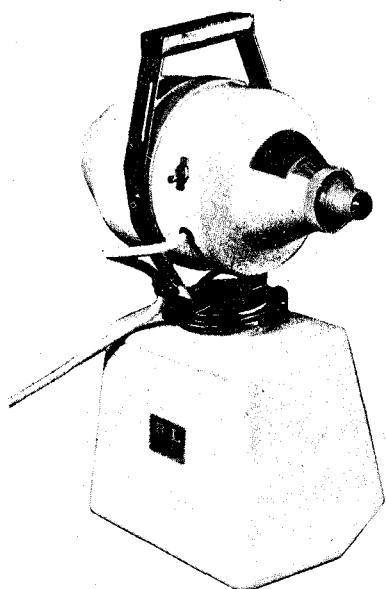
● 배합사료 가격면에서는

곡물수출국(미국)의 PIK 프로그램(곡물감산 정책)의 철회와 기대되는 1984년의 작황의 호조, 그리고 사료수급제도 개선에 따른 사료업체의 적극적인 원료사용 다양화 추진으로 배합사료가격이 다소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축산 및 사료업체의 안정적인 발전과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는 생산자(사료공장)의 무리한 배합사료 판매경쟁, 특히 외상판매와 덤펑 행위를 일소시킴으로써 필요이상의 배합사료 수요증가를 감퇴시켜 나가야 하며,

사용자(양축가)의 축산물수요를 외면한 무절제한 가축사육마리수 증가행위는 결국 축산경기의 불황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자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에고마틱(美) 계란선별기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선별을 보
증합니다.



루트로웰(美) 분무기보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 6ℓ 용량의 큰 약통
- 95% 이상을 50미크론 이하의 미립자
로 30m 까지 원거리 분무

과학(축산)시스템

서울 · 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